

메시지 4

아가의 내재적인 의미에 따라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유지함으로써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함

성경: 아 1:2-4, 2:8-9, 3:9-10, 4:12-16, 6:10, 13, 7:11, 8:13-14

- I. 한 편의 시인 아가(雅歌)의 주제는 탁월한 결혼에 이르는 사랑의 역사(歷史)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도록 개개인의 믿는 이가 여섯 가지 주요 단계에서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통을 나누는 점진적인 체험을 계시해 준다 — 계 19:7-9, 마 25:6-13, 계 3:18-22, 스펀 4:1-6, 11-14, 요일 4:19, 시 110:3, 119:140.
- A. 아가의 첫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만족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도록 이끌린다 (1:2-2:7). 주님은 그분을 추구하는 이가 그분과 개인적이고 다정하며 내밀하고 영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1:2, 4). 모든 영적인 원칙은 추구하는 이의 이기는 생활에 대해 말하는 아가의 이 첫 번째 단계에 담겨 있다. 이후의 공과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 공과들이 더 깊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 B. 아가의 두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 됨으로써 자아에서 벗어나도록 부름받는다 — 아 2:8-3:5.
1. 아가 2장 8절과 9절은 부활의 생명력에 대해 말한다. 이 절들에서 그리스도는 ‘산들을 뛰어오르고 언덕들을 뛰어넘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에 비유되신다. 산들과 언덕들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가리키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을 만큼 높거나 큰 것은 없다. 우리는 산들을 뛰어오르고 언덕들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추구하고 알아야 한다.
 2. 그리스도의 연인은 자기 성찰에 빠지는데, 이 자기 성찰이 그녀를 그리스도의 임재에서 벗어나 담을 쌓고 은둔하게 만든다(아 2:9하).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녀가 일어나 자신의 침체된 상태에서 나와 그분과 함께 있도록 그녀를 격려하신다(10-13절).
 3. 그리스도의 연인들인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아닌 부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 됨으로써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게 된다(아 2:14-15).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데,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와 하나 되어 자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새 창조물 안에 있는 새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된다(롬 8:2, 4, 29, 갈 6:15, 고후 5:17).
- C. 아가의 세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승천 안에 살도록 부름받는다 — 아 3:6-5:1.
1. 승천 안에 사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 안에서 생활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 엡 2:22, 창 28:12-17, 요 1:51, 계 4:1-2, 히 4:12, 16과 각주 2.
 2. 그 영계서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몸을 위하여 움직이실 때 타고 다니시는 그분의 운송 수단인 그분의 탈것 곧 그분의 ‘자동차’가 된다 — 아 3:9-10, 비교 고후 2:12-17.
 3.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으로 재건축되어,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한 인성이 우리의 외부 골격이 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내부 장식이 된다 — 아 3:9-10.

4. 그리스도의 연인은 부활 안의 새 창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으로 성숙되어, 그리스도의 내밀한 누림을 위한 동산이 된다(아 4:12-15). 그리스도의 연인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준비가 되었다(16절).
- D. 아가의 네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부활 후 십자가를 통하여 회장 안에 살도록 더 분명하게 부름받는다 — 아 5:2-6:13.
1. 그리스도의 연인은 회장 안에 생활함으로써 천체로 변화된다. 그리스도의 연인은 새벽처럼 밝아 오고 달만큼이나 아름다우며 해만큼이나 맑다 — 아 6:10.
 2.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숙하여 (‘솔로몬’의 여성형인) 솔람미가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연인이 결혼을 위해 그리스도와 어울리도록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되어 그분의 재생산과 복사관이 되었음을 상징한다 — 아 6:13, 고후 3:18.
- E. 아가의 다섯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 — 아 7:1-13.
1. 아가 7장 11절은 그리스도의 연인이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이곳저곳에 머물며(마을들에서 묵음) 온 세상(들)을 위한 일을 수행하기 원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그녀가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종파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녀는 일을 공개해 다른 이들이 그곳에 와서 머물 수 있게 하고, 또 그녀도 다른 곳에 가서 머물 수 있다. 이것이 한 몸 안에서 한 일을 지키는 것이다.
 2.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고후 6:1상). 주님과 함께 일하려면, 우리는 생명이 성숙해야 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하며 우리의 일이 반드시 그분의 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골 1:28-29, 고전 12:12-27).
 3. 솔람미는 솔로몬의 배필로서 일하며, 모든 포도원(아 8:11), 곧 온 땅에 있는 교회들과 믿는 이들을 돌본다. 우리는 반드시 온 세상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각 지방에 교회들을 세우고서 그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깨닫도록 이끄는 수행한 일이다(롬 16:1-24).
- F. 아가의 여섯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휴거되기를 소망한다(8:1-14). 그녀는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광야(땅에 속한 영역)에서 올라오고 있다(5절).
1.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라는 말은 야곱과 같이 그리스도의 연인도 주님께 영덩이뼈를 맞고 타고난 힘을 처리받았다는 것을 함축한다 — 창 32:24-25.
 2.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라는 말은 또한 그리스도의 연인이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광야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그 압박이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함축한다 — 고후 1:8-9, 12:9-10, 13:3-4.
 3. 그리스도의 연인은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을 도장처럼 그분의 사랑이 가득한 마음에, 도장처럼 그분의 힘이 가득한 팔에 지녀 주시기를 구한다. 이 시점에 그리스도의 연인은 자신이 무력하고 의지할 데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보존하시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 아 8:6-7.
 4. 그리스도의 연인은 자신도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해 달라고 그분의 동산들인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 요청한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신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언제나 그분께 귀 기울이며 그분과 교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 아 8:13.

II. 이 시적인 책의 결론으로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사랑하는 분께 부활 능력(가젤과 젊은 수사슴) 안에서 속히 돌아오셔서 온 땅을 가득 채울 그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왕국(향기 그윽한 산들)을 세우시기를 기도한다 — 아 8:14, 계 11:15, 단 2:35.

- A. 그러한 기도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연인 사이의 혼인의 사랑 안에서의 연결과 교통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연인인 요한의 기도가 성경의 결론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성한 사랑 안에 있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계시해 주는 것과 같다 — 계 22:20.
- B. “그분께서 오실 때 믿음은 사실로 변하고 찬양은 기도를 대신할 것이다. 사랑은 그들이 전혀 없는 온전함으로 완결될 것이고, 우리는 죄 없는 영역에서 그분을 섬길 것이다. 그날은 얼마나 놀랍겠는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23권, 노래 중의 노래, 174쪽, 여섯째 단락)